

Eugene O' Neill의 *Mourning Becomes Electra*에 나타난 'Water' 이미지

김 동 율*

'Water' Image in *Mourning Becomes Electra*

Dong-youl Kim

Abstract

This play based on Aeschylus's *Oresteia* has various images, which are characteristic of Greek myth. Among them, 'water' means birth-death-rebirth and resurrection. And the 'sea' identifies with the death-wish. In this play, the chantey named 'Shenandoah', is repeated like the waves of the sea. All accidents of the play are involved in the song, a representation of the image of 'water'. Suffered mainly from the puritanical, all of the characters are haunted by the dark side of life such as incest, suicide, matricide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is cyclical meaning of 'water' from the point of view of Orin and Lavinia. This paper also tries to show that the image value of 'water' can be revealed in the rebirth and hopeful potentiality through the death.

I.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Aeschylus의 *Oresteia*를 남북전쟁이 끝난 뒤의 New England를 배경으로 변안한 O' Neill의 *Mourning Becomes Electra*에서는 끊임없이 '바다'와 '바다에 떠 있는 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의 주요 갈등 국면에서 계속 들려 오는 뱃노래인 'Shenandoah'는 극의 분위기를 주도하며 극중 인물들에게 '바다'로의 회귀를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실제로 그들의 '바다'와 물에 대한 언급은 간통, 살인, 근친상간 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들의 '죽음과 같은 삶' 속에서 그 의미를 폭을 확대시켜 가고 있다.

* 한국해양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영어과 시간강사

이처럼 극속에서 ‘물’의 이미지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양상을 “오늘날 극작가는 그가 느끼는 대로 현대 사회가 지니고 있는 병폐의 근원, 즉 전통적 신의 죽음, 그리고 과학과 물질주의가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감소 시켜 줄 잔존하는 원초적인 종교적 본능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새로운 신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파헤쳐야 한다.”(신 숙원 267)라는 작가 O’Neill의 견해와 접목할 때, 그 의미의 폭을 단순한 심상의 차원에서 보다 확대할 수 있다. 즉, 물의 심상을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감소 시켜 줄 만한 대체 신앙적 요소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물의 이미지를, 먼저 물이 지니는 원형적 의미를 규명해 보고, ‘death-wish’로 동일시되는 ‘바다’로 나아가려는 의지, 마지막으로 물과 결부된 삶과 죽음의 문제 순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두 주인공, Mannon가의 Orin과 Lavinia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물이라는 하나의 심상이 단순한 물리적 심상으로서가 아닌 작품의 전반적인 구성을 형성하고 나아가 혼돈스러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신앙적 요소로까지 전개될 수 있다는 해석의 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II.

많은 문학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바다’와 ‘물’의 이미지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순환적(Circulation)의 이미지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이 지니는 이러한 순환적 이미지는 또한 삶과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순환의 이미지로 구체화된다.

Water: the mystery of creation: birth-death-resurrection: Purification and redemption: fertility and growth.

According to Carl Jung, water is also the commonest Symbol for the unconscious.

- a. The sea: the mother of all life: spritual mystery and infinity: death and rebirth: timeless and eternity: the unconscious.
- b. Rivers: death and rebirth (baptism): the flowing of time into eternity: transitional phases of the life cycle : incarnation of deities. (Wilfred 157)

‘물’은 생로병사의 근원적 순환으로서, 특히 무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연구가 밝혀 온 것처럼, 생명의 기원은 ‘바다’ 즉, ‘물’에서 시작되었다. 바다는 먼 옛날 가장 초보적인 생물이 살아가던 근원지로서 모태인 동시에, 또한 인간이 이와 유사한 모체의 양수 속에서 성장하여 탄생되는 점으로 볼 때, 인간이 자신의 고향인 ‘바다’라는 ‘모신’으로 회귀하려는 행위는, 무의식적인 회귀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물’의 이미지에서 중요한 점은 그것이 죽음과 탄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The world of water is the water of death, often identified with spilled blood,... In the Bible the sea and the animal monster are identified in the figure of the leviathan. (Frye 150)

이러한 리바이어던의 이미지는 보다 확대된 의미를 나타낸다.

The leviathan is usually a sea-monster, which means metaphorically that he is the sea. if the leviathan is death, and the hero has to enter the body of death, the hero has to die, and if his quest is completed the final stage of it is, cyclically, rebirth, and, dialectically, resurrection.(Frye 191-2)

Northrop Frye는, 이러한 죽음과 삶의 공시적 양상이 'spragmos'라는 육체를 갈가리 찢는 행위의 형식을 통하여, Osiris의 경우처럼, 자연계의 구석구석까지 뿌려져 다시 소생한다는 것이다(192). 이러한 'spragmos'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과 갈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Cirlot도 죽음을 immersion으로 표현하며 이를 통해 더욱 강화된 삶을 얻는다는 순환적이고 희망적인 'water'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The water ,in short, symbolizes the universal congress of potentialities, which precedes all form and all creation. Immersion in water signifies a return to the preformed state, with a sense of death and annihilation on the one hand, but of rebirth and regeneration on the other, since immersion intensifies the life of force... Whether we take water as a symbol of the collective of or of the personal unconscious, or else as an element of meditation and dissolution, it is obvious that this symbolism is an expression of the vital potential of the psyche, of the struggle, of the psychic death to find a way of formulation a clear message comprehensible to the consciousness (Cirlot 365-6)

그러나 인간이 바다라는 거대한 '모신'에 이르는 길은, 그것이 회귀 본능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쉽고 단순하지는 않다. 삶으로 오염된 자신의 육신을 찢어내어야 하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체재와 규제를 혐오하고 본능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여겨지는 낭만주의자들에게서도 이런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George. G. Byron은 바다로 나아가는 자신의 행위를 '즐거운 두려움'이라고 묘사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Ocean! and my boy
Of youthful sports was on thy breast to be
Borne, like thy bubbles, onward : from a boy

I wantoned with thy breakers -they to me
Were a delight ; and if the freshening sea
Made them a terror - t'was a pleasing fear,
For I was as it were a child of thee
And trusted to thy billows far and near,
And laid my hand upon thy mane - as I do here. (Abrams 540)

Byron은 바다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어린 시절로 회귀하는 현실의 해체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한 즐거움이지만, 현실과 현재가 부정되고 찢기는 공통까지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Mourning Becomes Electra*는 O'Neill의 신비주의가 잘 반영된 작품으로 사실의 세계로 이끈다는 지적처럼 (Lawson 42) 그의 특징이 반영된 작품에서 '바다'의 이미지는 특히 음악적인 효과를 통하여 뚜렷하고 두드러지게 묘사되고 있다.

From the left rear, a man's voice is heard singing the chanty
"Shenandoah"- a song that more than any other holds in it the brooding
rhythm of the sea.¹⁾

'Shenandoah'는 '바다의 리듬이 드리운' 뱃노래로서 앞으로의 강에서 바다까지의 지나간 여정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Shenandoah'는 제1부에서 1막과 3막, 제2부에서는 4막과 5막, 제3부에서는 4막의 처음과 끝부분에서 각각 등장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이 노래는 'Broad and Stately'한 창법으로 부르게 되어 있으며, 음의 진행 또한 물결의 형태를 지니고, Solo-Chorus-Solo-Chorus의 형태로 진행되게 되어 있다. 즉, 가장 원시적인 자연의 리듬인 바다의 리듬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O'Neill은 이러한 원시적인 자연의 리듬을 통하여, Carl Jung이 '모든 문명인은 자신들의 외적 발전이 아무리 높다 해도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원시인이다.' (Bell 90)라고 말했듯이, 관객의 청각에 원시적 자연의 세계인 '바다'로의 귀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극 속에서 이러한 '바다'에의 귀의는, Mannon가의 현실 속에서는 매우 요원한 것으로 드러난다. Seth가 부르는 'Shenandoah'를 듣고 어머니인 Christine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She stands and listens defensively, as if the music held some meaning
that threatened her. (462)

이러한 Christine의 방어적인 태도는, Mannon가의 인물들이 '바다'라는 의미 속으로 귀의 하여야 할 필요성과 또한 동시에 동기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Mannon가에 있어서 그들이 '바다'라는 의미 속으로 귀의 하여야 할 필요성과 또한 그것을

1) Eugene O'Neill, *Selected Plays of Eugene O'Neill* (N. Y.: Random House, 1956) p. 459, 이하 작품의 인용은 이 책에 의거해 쪽수만 내각 주로 표기함.

막고 있는 구체적 현실은 청교도주의로 볼 수 있다. 이 청교도주의는 Mannon가의 인물들을 냉혹하고 감정적으로 경직되게 만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구체적인 묘사는 Christine의 대사를 통해 그들의 집 자체를 하나의 커다란 무덤의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I felt our tomb needed a little brightening. Each time I come back after being away it appears more like a sepulchre! The "whited"one of the Bible-pagan temple front stuck like a mask on Puritan gray ugliness! It was just like old Abe Mannon to build such a monstrosity - as a temple for his hatred. Forgive me, Vinnie. I forgot you liked it. And you cught to. It suits your temperament. (469)

청교도주의의 가면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Mannon가의 가장인 Ezra를 닮은 Lavinia는 몸 에 배인 청교도주의로 인하여 '무덤 같은 집' 적성에 맞는다. 이로 인하여 Lavinia는 '바다' 에 대한 Brant의 이야기를 한낱 'romantic lies'로서만 받아들이고 있다.

Lavinia가 어머니의 정부인 Brant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녀의 청교도적인 기질뿐 아니라, 그녀가 Brant의 과거를 알려고 유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Brant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land set in the blue of the sea'는 이 극속에서 최초로 '바다'가 지니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Aye! And they live in as near the Garden of Paradise before sin was discovered as you will find on this earth! Unless you've seen it, you can't picture the green beauty of their land set in the blue of the sea! the cloud like down on the mountain tops, the sun drowsing in your blood, and always the surf on the barrier reef singing a croon in your ears like a lullaby! The Blessed Isles, I'd call them! You can forget there all men's dirty dreams of greed and power! (474)

'인간의 더러운 탐욕과 권력에 대한 꿈'이 아닌, 순진무구한 애정에 둘러싸인 어린아이의 꿈만을 꾸게 하는 '바다'의 자장가(lullaby)는, Mannon가에 있어서는 머나먼 뱃길을 자조하는 Shenandoah의 노래로 변모되어 끊임없이 들려 오며, Brant와 함께, 그들이 깨어나 바다로 회귀하기를 종용하고 있다.

Mannon가의 인물 중에서 Orin은 청교도주의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바다'로 회귀하리라는 암시가 그의 외모 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He carries himself by turns with a marked slouchiness or with a self-conscious square-shouldered stiffness that indicates a soldierly bearing is unnatural to him. When he speaks it is jerkily, with a strange, vague, preoccupied air. But when he smiles naturally his face has a gentle boyish charm which makes women immediately want to mother him. (520)

Ezra의 영향으로 그는 청교도주의에 몸이 배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어딘가 어색해 보이고 또한 엄격함과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천성적인 모성의 자극이 필요한 것이다.

Orin에게 있어 청교도주의를 초월하는 '개안'을 하게 되는 동기는 전쟁이다. 전쟁터에는 수많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I thought it would never end, that we'd go on murdering and being murdered until no one was left alive! Home at last! No, by God, I must be dreaming again! But the house looks strange. (529)

그가 수많은 죽음을 딛고 돌아온 집이 영원히 살리라고 믿고 있던 Ezra의 시신이 놓여 있는 '무덤'으로 되어 있다. 그는 전쟁터에서 그토록 용감하게 싸웠던 아버지가 오히려 전쟁이 끝나 집으로 돌아와서 죽은 사실에 의아해 한다. 그리고는 또 다른 전쟁터에 그가 도달해 있음을 깨닫게 된다.

'the war that would never end until I died. (522)

Orin은 거듭되는 전쟁 속에서 보아 오는 죽음을 통하여 경직된 청교도주의의 허물을 차츰 벗게 된다. Mannon가의 삶은 죽음에 가까운 것 (death-in-life)으로서, 오히려 죽음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Ezra의 모습을 보며 친근감을 느낀다.

Death sits so naturally on you! Death becomes Mannon! You were always like a statue of an eminent dead man- sitting on a chair in a park or straddling a horse in a town square-looking over the head of life without a sign of recognition - cutting it dead for the impropriety of living! You never cared to know me in life - but I really think we might be friends now you are dead! (537)

여기에서 Orin이 죽은 Ezra의 모습에 친근감을 느끼는 것은 Ezra가 쓰고 있던 청교도주의 이라는 가면을 벗은 모습에서이다. 따라서, Ezra의 죽음은 청교도주의의 죽음인 동시에 Humanism의 부활로 볼 수 있다. 이는 Ezra자신도 '죽음을 통하여 삶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언급에서도 알 수 있다.

또 '바다'에 대한 Orin의 상상은, 죽음이 산재해 있는 전쟁터에서 머리에 상처를 입어 사경을 헤매일 때 일어난다.

those Islands came to mean everything that wasn't war, everything that was peace and warmth and security. I used to dream I was there. And later on all the time I was out of my head I seemed really to be there. There was no one there but you and me. And yet I never saw you, that's the funny part. I only felt you all around me. The breaking of the waves

was your voice. The sky was the same color as your eyes. The warm sand was like your skin. The whole island was you. A strange notion, wasn't it? But you needn't be provoked at being an island because this was the most beautiful island in the world - as beautiful as you, Mother! (534)

여기서 '바다'의 이미지가 Christine과 동일화되어 있는 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Christine이 Ezra를 살해한 외형적 동기는 Brant와의 부정행위지만, 결과적으로는 Ezra라는 청교도의 가면을 쓴 인물을 제거하여 Humanism의 부활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살아 있는 puritanist보다 죽은 시체가 더 친근하듯이, 비록 죄는 지었지만 살아 유통하는 Humanist가 그만큼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역설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Christine이 Ezra와의 삶이 죽음보다 못한 것이었다라고 지적하는 언급에서 뒷받침된다.

Orin이 Christine의 부정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바다'에 떠 있는 자신의 섬을 잃어버리게 된다. 또한 자신이 Christine과 함께 가고 싶어한 섬에 사실 Christine은 Brant와 같이 가고 싶어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But that's lost now! You're my lost island, aren't you, Mother? (544)

Orin이 자신의 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묘한 irony가 있다. 즉, 위에서 살폈듯이 '바다'에로의 회귀가 그가 살아온 경직된 청교도주의의 가면을 벗고 Humanism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띠는 것이라면, 그가 자신의 '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강렬한 Humanism의 발로라고 할 수 있는 Christine에 대한 '지나친 애정'에 있다는 점이다. Christine의 부정한 장면을 확인하고 Orin은 격렬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Brant를 살해하고 만다. 그는 죽은 Brant의 시체를 보며 자기 자신을 죽였음을 깨닫게 된다.

He looks like me, too! Maybe I've committed suicide! (556)

Brant가 Orin에게 살해되기 전 'The Blessed Isles'으로 찾아가려고 했던 점으로 보아, Brant의 살해를 통해 Orin은 자신의 바다에로의 회귀를 스스로 막는 결과를 낳는다.

Brant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Christine이 자살한 사실에 Orin은 깊은 죄의식에 빠져든다. Orin의 이러한 죄의식은 그가 청교도주의의 뿌리깊은 강박관념을 떨어내지 못하고 자신이 꿈꾸던 바다에의 회의를 이루지 못한 깊은 자아 성찰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는 Lavinia와의 '섬'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But they[islands] turned out to be Vinnie's islands, not mine. (582)

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바다'에의 회귀에 대한 Orin의 깊은 성찰은 이후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그는 보다 강력한 'death-wish'를 통하여, 경직된 청교도주의의 강박관념을 떨어내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죽음보다도 못한 'death-in-life'로서 묘사하고 있다. 즉, 'death-in-life'를 'life-in-death'로 환원하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Orin이 이처럼 죽음을 청교도주의적 삶과 완전한 결별로 생각하기

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Mannon가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기록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인 Hazel에게 의도적으로 멀어지려는 점이다.

Hazel! You mustn't love me any more. The only love I can know now is the love of guilt for guilt which breeds more guilt - until you get so deep at the bottom of hell there is no lower you can sink and you rest there in peace! (597)

청교주의와의 결별을 뜻하는 죽음이 'rest'와 'peace'라는 의미와 결부되어질 때 죽음은 '바다'에의 회귀와 동일한 의미를 뜻하게 된다. 즉, 'death-wish'는 '바다'에의 회귀 의지와 동일한 의지가 되는 것이다.

Yes ! It's the way to peace - to find her again- my lost island - Death is an Island of Peace, too. Mother will be waiting for me there - Mother !... Mother! I'll wish you happiness - you and Adam! (602)

Orin은, 비록 그들의 사랑이 불륜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이 뜨거웠던 만큼 그들은 박애적이었으며, 또한 사랑은 죽음을 각오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초월한 박애주의자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Orin은 그들이 '죽음'이라는 항해를 거쳐 '바다'에 떠 있는 '섬'에 도달하여 'peace'와 'rest'를 찾았다는 자각(anagnorisis)을 하게 된다.

Orin은 이상과 같은 자각을 통하여 자살한다. 이로써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물'의 이미지가 지니는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하나의 완전한 순환적 구조(circulation)를 이루게 된다.

한편, 죽음을 통하여 삶을 회복하려는 Orin과는 대조적으로 Lavinia는 죽음과 같은 삶(death-in-life)을 정면에서 받아들이는 초인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점은 그녀가, Orin과는 달리 '섬' 생활에서 자신의 육체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청교도주의를 벗어 던진 결과다.

I loved those Islands. They finished setting me free. There was something there mysterious and beautiful- a good spirit - of love - coming out of the land and sea. It made me forget death. There was no hereafter. There was only this world - the warm earth in the moonlight - the trade wind in the coco palms - the surf on the reef - the fires at night and the drum throbbing in my heart - the natives dancing naked and innocent - without knowledge of sin! (585)

Lavinia가 청교도주의를 벗어 던진 결과로서 드러나는 외형적인 변화는 그녀가 Mannon가로 돌아올 때의 첫모습과 비교해서 확실히 드러난다. 예전에 그렇게 여위고 성숙치 못했던 그녀의 몸매는 이제는 완전히 성숙해 있다. 그녀의 행동에는 각진 어깨의 딱딱하던 티가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점에서 어머니를 놀랄 만큼 닮아 있다.(576) 그러나 그녀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그녀의 피부로까지 여겨지는 '검은 옷'(상복)을 벗고, '그녀의 어머니가 입던 초록

빛 옷'을 입은 것이다. 그녀는 '섬' 생활을 통하여 청교도주의의 death-in-life를 벗어 던지고 '사랑'이라는 박애주의를 회복한 것이다.

Lavinia는 자신들의 새로운 삶에서 '사랑'이 가장 절실한 것임을 깨닫고 있다. 그녀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Orin에게,

what we need most is to get back to simple normal things and begin new life. And their friendship and love will help us more than anything to forget. (579)

라며, 그녀가 '바다'를 통해 획득한 교훈을 충고해 준다.

Lavinia는 약혼자 Peter와의 대화에서 '바다'로의 회귀를, 청교도주의 삶에 연루한 과거의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Peter : ... you look so darned pretty - and healthy. Your trip certainly did you good ! I can't get over seeing you dressed in color. You always used to wear black.

Lavinia: I was dead then. (582)

Lavinia가 '바다'의 '섬' 생활이라는, '물' 이미지를 통한 하나의 완전한 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은 Orin보다 더욱 '극적'(dramatic)인 양상을 띠고 있는데, '바다'를 통한 죽음에서 삶을 회복한 그녀가, '묘지'로 여겨지고 있는 Mannon가에서 그녀의 당당한 삶의 뿌리를 내리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Orin이 '바다'를 통해 깨달은 'death-wish'로서 '삶'을 회복하려는 반면, 그녀는 '바다'를 통해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당당한 '삶의 의지'로서 삶에 도사린 죽음, Mannon가의 death-in-life에 맞서려는 것이다.

Don't be afraid. I'm not going the way Mother and Orin went. That's escaping punishment. And there's no one left to punish me. I'm the last Mannon. I've got to punish myself! Living alone here with the dead is worse act of justice than death or prison! I'll never go out or see anyone! I'll have the shutters nailed closed so no sunlight can ever get in. I'll live alone with the dead, and keep their secret, and let them hound me, until the curse is paid out and the last Mannon is let die! (612)

창문을 모두 막고 빛이 조금도 들지 않는 암흑 속에서 칩거하려는 그녀의 의지는 그녀 스스로의 '무덤'이 아니라 Mannon가가 지닌 경직된 청교도주의의 완전한 절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Lavinia가 집안으로 들어가 등뒤로 문을 닫을 때 들려 오는 Seth의 노래인 'Shenandoah'는, '물'이 지니는 하나의 완전한 순환이 끝나고, 먼 '바다'에로의 항해를 시작하려는 또하나의 출발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Lavinia의 삶에 대한 의지는 '바다'에의 회귀에 대한 의지로서 좌절됨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III

이상에서 *Mourning Becomes Electra*에서 드러난 '바다'의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바다'는 원형적인 '물'의 image로 볼 때, 생로병사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죽음'을 수반한 '부활'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특히 '무의식'과도 관계가 깊다.

이 극속에서 '바다'의 이미지는 끊임없이 들려 오는 'Shenandoah'의 뱃노래로 드러나고 있다. 각각의 등장 인물들에 있어 '바다'의 이미지는 경직되고 죽어 있는 청교도적 삶에서 벗어나 'peace'와 'warmth'가 있는 '바다의 섬'에의 회귀로서 드러난다.

그러나, '섬'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다'라는 '죽음'을 거쳐야 한다. 즉, 청교도주의의 삶에 대한 결별이라는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Orin에게 있어서, 이러한 청교도주의의 죽음은, 그와 Christine과의 심리적인 관계 즉 지나친 애정으로 인하여 완전한 결별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삶, 그 자체에 대한 완전한 결별, 즉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peace'를 회복한다. Orin의 죽음은 자신이 꿈꾸어 오던 '바다'에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그는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물'의 완전한 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순환은 Lavinia에게 있어서도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녀가 청교도주의의 삶에 보다 깊이 뿌리박고 있었던 만큼, '바다'의 회귀를 통하여 회복한 그녀의 '사랑' 또한 그만큼 강렬하게 드러난다. 그녀가 회복한 '사랑'은 물론, 그녀가 지닌 과거의 죽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고, 이 죽음은 섬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Lavinia의 이러한 변화는, 그녀를 거대한 죽음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Mannon가의 운명에 당당하게 맞서리라는 초인적인 삶의 의지로서 드러나게 된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그리스 비극 *Oresteia*에 그 원천을 두고 있지만, O'Neill의 여느 극에서 보다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 극이 물이 지닌 순환적인 이미지 처럼, 하나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미래를 지탱케하는 가능성이 제시되는 점이다. 이것의 역할을 이 극속에서 '바다'와 '물'의 이미지가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신 숙 원. 유진 오닐. 문학과 지성사, 1988.

Abrahams, M. H.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2.

Bell, Michael. *Primitivism: The Critical Idiom Series*. London: Methuen & Co Ltd., 1972.

Cirlot, J. E. *A Dictionary of Symbols*. London: Routledge, 1981.

Frye, Northrop.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Princeton U.P., 1973.

Guerin, Wilfred L. & Others. *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2nd Edt.* London: Harper & Row Press, 1979.

Lawson, John Howard. Eugene O'Neill. Ed. John Gassner. *O'Neill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J.: Prentice-Hall, 1964.

O'Neill, Eugene. *Selected Plays of Eugene O'Neill*. New York: Random House, 1967.